

News

4대 금융지주 올해 역대급 배당...3조8000억원 전망

이코노미스트

주요 금융지주사,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의 배당 실시할 것이라는 전망… 4대 금융지주, 올해 배당성향을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26% 안팎 수준으로 되돌리기로 내부 방침 결정 올해 이익 증가율이 더해져 연간 배당금 총액은 역대 최대 수준인 3조 8,000억 원대에 달할 것으로 추정… 금융당국 관계자, "올해 6월 자본관리 권고 종료 후 결정은 자율사안"

코로나 재확산에 대출금리 상승…취약차주 부실 경고등 커지나

뉴스1

4대 시중은행의 20일 기준 신규코픽스 주담대 금리 3.71~5.06%, 신용대출 금리 3.38~4.59%로 소폭 하락… 대출금리는 향후 상승세 그릴 것으로 예상 은행권에서는 내년 주담대 금리 6% 넘어서고 신용대출 금리는 5% 중반까지 가능하다고 전망… 다만 취약차주 부실 가능성 높아질 가능성

인터넷銀 중금리대출 금리, 시중은행보다 높네

이데일리

인터넷전문은행들, 중·저신용자에게 책정한 대출 금리가 주요 시중은행보다 높아… 특히 토스뱅크 금리는 5대 은행보다 최대 2배 이상 높게 나타나… 지난 10월 기준 5~6등급자에게 신규 취급 신용대출 가중평균 금리 카카오뱅크 연6.0%, 케이뱅크 7.07%, 토스뱅크 9.53%… 인터넷은행 설립 취지 무색

인플레 장기화 우려속 세계중앙은행들 해법 '각양각색'

파이낸셜뉴스

전세계적 인플레이션 장기화 가운데 서구권 통화정책 디커플링… 미국과 영국 중앙은행 기준금리 인상, ECB는 내년에도 완화정책 유지 기조 신흥국 중앙은행들은 선진국 은행들보자 더 이른 시기부터 기준금리 빠르게 올려와… 특히 브라질은 1.5%p 인상해 올해만 7번째 인상

코로나 길어지자… 생명보험 가입률도 역대 최대 폭 하락

조선일보

생명보험에 가입한 가구 비율 81%로, 3년 전보다 5%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 역대 최대 하락 폭 생명보험을 자발적으로 깨서 받은 해지 환급금은 지난해 27조 4,898억원으로 역대 최대… 가계 살림이 어려워져 보험료 낼 여유가 없는 것이 해지의 근본 원인

"실손보험료, 결국 오른다"… 보험사, 내년도 '실적잔치' 예고

머니S

보험사들, 내년에도 실적 잔치 예고…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두자릿수 인상 예고로 손실 규모 줄어들 것이라는 관측 때문 이번 주 실손보험료 인상폭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 예정… 현재로선 전년대비 15% 인상이 가장 유력… 그간 실손보험 보험료 안정화 할인 특약 종료 건의 등 적극적인 모습

실탄 채운 '중소 증권사' 신사업 속도

매일일보

ROE 개선된 중소형 증권사들, 신사업 강화에 박차… KTB ROE 36.9%, 흥국증권 23.5%, 한양증권 23.3%, 이베스트 21.4% 코로나19로 인한 유가증권시장 유동성 침체 영향 때문… 다양한 펀드 라인업 구축, 디지털, 기업금융 육성 등 다양한 방식으로 수익구조 개선에 힘쓸 것

증권사 지점 통폐합 가속화...대형·복합센터 변신 박차

데일리안

디지털, 비대면 거래 확산으로 영업지점 운영 최소화… 내년에도 지점 통폐합을 통해 효율화 추구 전략 지속할 예정 WM 확대와 금소법 시행 또한 이러한 움직임을 가속화… 대신 온라인 자산관리 시장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어 마이데이터 기반으로 변화할 것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